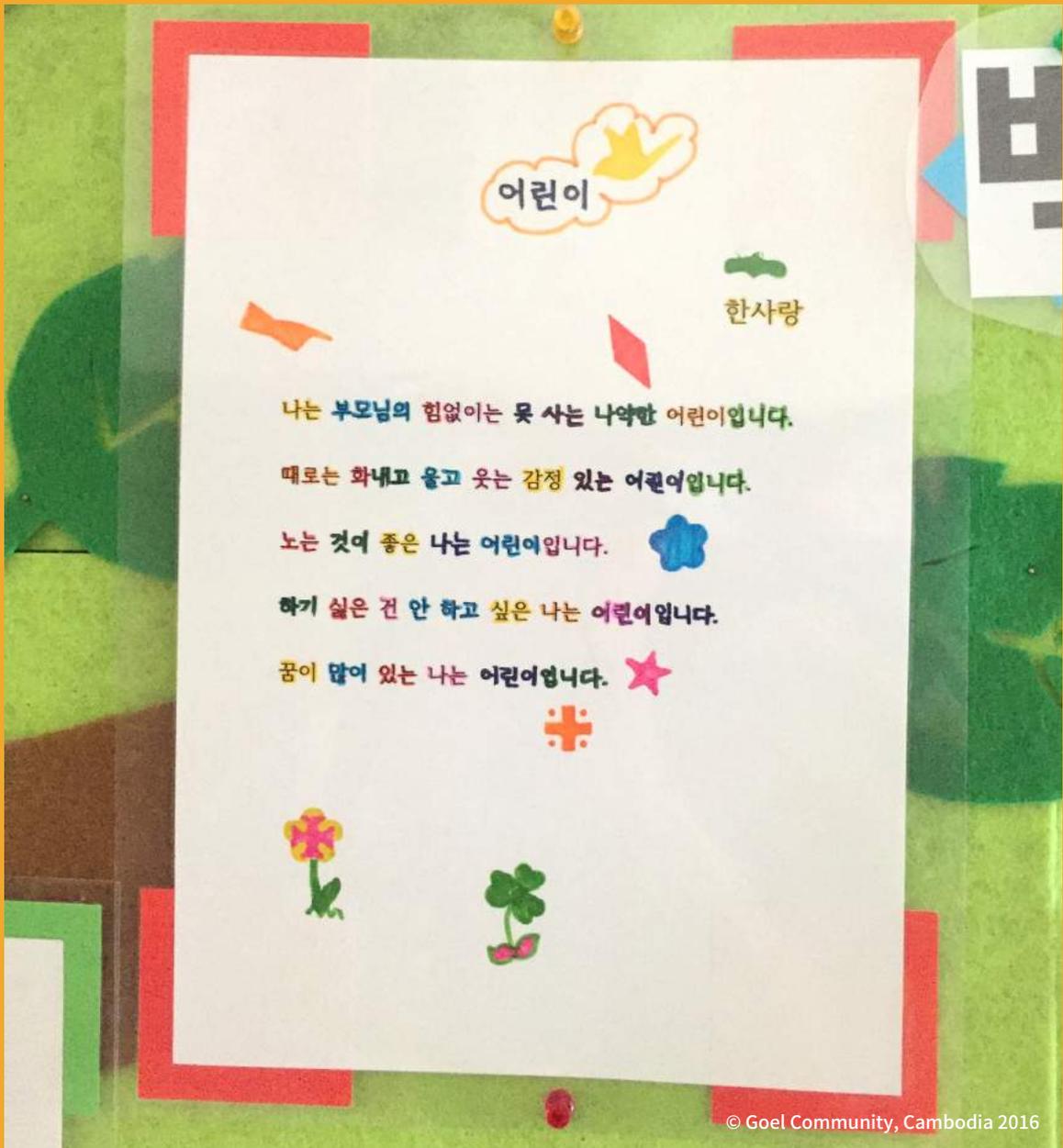


# TOGETHER<sup>+</sup>

## 함께

Vol. 21 2017 SPRING



© Goel Community, Cambodia 2016

# TOGETHER+ 함께

## Vol. 21 2017 spring



04



06



08



10



14



18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발행일** 2017. 02. 21 **발행인** 송월주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디자인** (주)착한넷 <http://www.chakan.net>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 513-196182-13-105 / 국민 032901-04-181772 / 농협 301-0011-3418-11 / 신한 140-008-341200

# Contents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특집

04 나에게 '나눔'이란 '가벼움'이다

## 현장 속으로 1

06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 프로젝트'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목청 아이들의 첫 납품"

08 발달장애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을일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네 꿈을 펼쳐라!"

## 현장 속으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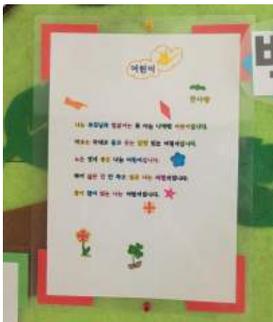
10 2017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1

## 인터뷰

14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  
"가족 단위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 재단 소식

18 재단 동향



## Coverstory

2017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의 새로운 파트너 기관인 캄보디아  
고엘공동체 창립자 딸 한사랑이 쓴 시

### <알려 드립니다>

소식지 함께+20호(겨울호) 뒷페이지에 실린 주소와 연락처는 사회적기업  
'덜럽'의 연락처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일하는재단으로  
연락주세요. 대표전화 02-338-0019

# 나에게 ‘나눔’이란 ‘가벼움’이다

글. 빅워크 대표 환완희

평소 기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호에는 걸음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한 ‘가벼운 기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걸을 때 빅워크를 켜두기만 하면 내가 걸은 만큼 측정하여 기부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은 우리 근처에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육성한 소셜벤처기업 빅워크가 생각하는 나눔은 무엇일까요?

12월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부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떠올리게 된다. 거리에는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고 미디어에서는 나눔과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다. 마치 정해진 틀이 있는 것 같은 많은 기부 이벤트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등장하고 이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마 1년 중 나눔을 가장 많이 실천하는 시기일 것이다.

앞서 말한 내용은 현재 ‘나눔’에 대한 빅워크의 생각과 고민이다. 빅워크는 ‘나눔’, ‘기부’, ‘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획자로 이루어진 IT기업이다. 그래서 기존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고민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민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라 행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자리잡고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빅워크는 시작되었다. ‘꼭 따로 시간을 내는 것과 계획을 통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는 기부가 개인의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편리함과 재미를 갖춘 ‘나눔’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닿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긍정적인 문화가 탄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빅워크가 만들어졌다.

일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음, 그 걸음이 곧 기부가 되는 ‘빅워크’. 걸음을 선택한 것은 일상의 가벼운 행위를 통해 어려워보였던 기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편안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기부를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기부하는 구조가 아닌, 나눔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걸음의 긍정적인 효과와 기부를 연결했다.



걸음을 모으는 ‘걸음모음통’을 통해 함께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동정의 시선으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나눔이 행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현금기부, 물품기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접 행동기부(봉사활동)를 하는 빅워커(사용자)들을 만나며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빅워크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된다.

‘나눔’이란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공자와 수혜자 양쪽에 대해 깊은 고민과 공감의 필요성이 있다.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는 콘텐츠를 통해 기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혜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수혜자에게는 ‘나눔’이라는 행위로, 기부자에게는 ‘고민’과 ‘공감’을 통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변화의 동기는 지속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이 선순환되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적인 모금 중심으로 진행되고 계속해서 수혜자를 자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빈곤의 포르노그래피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기부금, 유명인의 기부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1원이라도 나의 움직임으로 기부한다는 것, 그것을 통한 내적 변화 그리고 주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통해 일어나는 지속적인 일상의 기부로 사회

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횡단보도의 물을 지키고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등 공공의 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큰 의미에서 나눔이라고 생각하며 빅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말하는 상식을 더욱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눔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는 모든 영역에 혁신을 광적으로 외치대지만 아직 나눔의 혁신에 대한 외침은 부족하다. 진정한 나눔의 혁신을 통해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눔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혁신의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wf**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 프로젝트’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목청 아이들의 첫 납품”

글. 아름다운학교 교사 지혜민

함께일하는재단의 ‘라이트어램프(light a lamp)’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내적 성장을 통해 자립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1년의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중 홀로서기 과정에서 목공기술을 익힌 아이들이 동네 공방에서 실제로 작업테이블을 주문받아 제작하고 납품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기록입니다. 이 글은 담당 교사로서 제품의 수주, 설계, 제작, 납품의 전 과정에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마냥 어설피기만 했던 아이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한 발짝 걸음을 떼는 뿌듯한 순간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매우 작지만 아이들 인생의 여러 필름 중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작이 반이다

동네에서 작은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공방에서 쓸 작업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작업테이블이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시중 건 비싸기도 하지만 주문 제작이 아니면 우리 작업실 크기에 딱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가로 2m의 큰 테이블, 그것도 실용성이 매우 중요한, 이번엔 진짜주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아이들은 아름다운 학교에서 목공을 배워 앉은뱅이 책상, 핸드폰 거치대 같은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동네 벼룩시장이나 건대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팔아 본 경험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잘 만들어서 꼭 팔자!’고 결의에 차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되면 팔고, 망하면 내가 써야지!’라는 생각뿐이니….

제작회의에 들어갔다. 일단 스케치를 한다. 큰 책상이니까 중간에 뿔받쳐야 하지 않을까? 턱받침과 보강대가 추가된다. 이제 목재를 주문한다. 그냥 주문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 일정 두께의 목재 한 장에 상판, 다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최대 목재를 잘 활용하도록 목취도를 그려야 한다. 누군가 ‘첫 주문도 받았는데 우리 이름부터 정하자!’라고 말하자 말이 없던 친구가 조용

히 “목청은 어때…? 목수 청소년… 목청(木靑!)” 한자도 예쁘다! 그렇게 우리 작업팀의 이름이 지어졌고 첫 주문은 열흘 후 배달을 약속하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다들 신이 났다. 시작이 반이다! 스케치를 해놓고 다 된 양 들떠 있었다. 주문은 막내가 맡았다. 근처 목재소에 가서 목취도를 드리며 주문을 했다. 두께와 재질을 이것저것 확인하며 주문을 넣었다. 배달비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다. 며칠 후, 목재가 왔다! 그런데 이런… 너무 얇다. 주문한 것보다 많이 얇다. 목취도 대로 잘려오지도 않았다. 목재소에 가서 확인하니 사장님이 목재 두께를 잘못 메모하신 모양이었다. 어쩐지 가격이 싸더라니… 원망이 났지만 우리도 결제 금액의 차이를 보고 확인했어야 했다. 서로의 잘못이다. 일단은 다시 주문을 넣었다. 이번엔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가격을 깎아주셨다. 막내는 자책하며 시무룩해졌다. 일이 틀어져서 어찌나 풀이 죽어있던지, 형들이 다독여준다. 네 탓이 아니라고… 형들의 말에 막내의 표정이 조금 나아졌다.

## 10년 후의 오늘은 어떻게 기억될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수로 빙의! 눈에 는 고글, 손에는 드릴, 몸에는 작업용

앞치마 장착! 자르고 뚫고, 사포질하고 칠하고 주말 사이에 말리고 다시 칠하고를 반복했다. 며칠 동안 야간작업까지 해가며 땀 흘린 끝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생각보다 책상이 멋지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만든 건가? 뽕뽕이를 사다가 아이들과 함께 상판과 다리를 따로 포장했다. 행여나 흠이라도 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바느질 공방은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주택가에 있었다. 처음엔 직접 들어 옮기겠다며 의욕이 충만했지만 비도 내리고 이건 도무지 걸어서 옮길 수 있는 크기와 무게가 아니었다. 다행히 상판이 목공 선생님 차에 실렸다. 공방에 들어가자 주문하신 공방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나서 조립에 열중했다. 그 모습이 어설픈는지 모르지만 집중하는 모습만큼은 정말 멋있었다. 조립된 작업대에 대한 유의점들을 말씀드리고 아이들은 10년 간 A/S를 약속했다.

첫 납품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수익금은 재료비를 제외하고 목청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의 오늘은 이 작업대의 A/S가 끝나는 10년 후엔 어떻게 기억될까… **wf**

# 발달장애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을일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네 꿈을 펼쳐라!”

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리 오소영

세상과 단절된 채 좌절감만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인 ‘라이트어램프 (light a lamp)’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해주었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꿈을 찾은 스물두 살 정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세상의 끝에서 좌절을 맛보다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누나는 어머니를 따라 수원으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전라북도 전주에서 단둥이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너무 슬프고 세상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지내기를 몇 개월 누나를 따라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 새로운 인연, 새로운 도전

저는 누나의 소개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저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온 날, 직업훈련반 친구들을 보며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다니기를 여러 날. 직업훈련반 선생님의 추천으로 함께일하는재단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라이트어램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훈련, 제병관리사, 도서관사서업무 보





조훈련 등 다양한 직무훈련을 배웠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직무훈련을 같이 하며 달했던 마음이,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끝내놓고 다른 친구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이,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만했던 저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직무훈련뿐만 아니라 실전감을 익힐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자기주장훈련, 경제교육 등 수업을 꾸준히 받으면서 긍정적인 긴장감, 취업준비 방법 및 과정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직접 해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전감을 익힐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또 12월 한 달 동안은 계절밥상과 서가앤쿡 사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릇을 세척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고된 부분도 있었지만 복지관을 벗어나 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일을 해본다는 것,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직장의 신으로 거듭나기

“꿈을 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 - J.W. 괴테



아무것도,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한줄기 빛처럼 저에게 함께일하는재단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두려움, 의심들로 가득찼던 어느 날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천해주시면서 이런 시를 들려주셨습니다. 괴테의 시였습니다.

세계도 하고 싶은 게 생겼고, 일하고 싶다는 욕망, 욕구가 생겼습니다. 긴 터널만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과정에 작은 새의 지저귐도 있을 것이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야만 하는 정말 큰 바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렸던 세계 꿈을 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wfi**



## 2017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1

글. 국제협력팀 책임매니저 이명희

함께일하는재단은 2010년부터 <SBS 희망TV> 캠페인을 통해 해외의 가난한 아이를 돕고자하는 기부자님들의 의지에 힘입어, 지구상의 아동빈곤 근절을 위하여 머리를 싸맸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빈곤아동을 찾아가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이의 보호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STP)이라는 이름으로, 기부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통해 지구촌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아동의 보호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해외의 착한 기업을 찾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호는 2017년 새롭게 지원할 파트너를 찾아 해외의 착한 기업을 찾아 떠난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고엘공동체(Goel Community) “별이든 많지 않아도, 애 엄마도 눈치만보고 일할 수 있는 고엘과 평생 함께 일하고 싶어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오두막집에 단출한 살림의 가난한 가정들이 눈에 띕니다. 농사로 먹을 것을

마련하지만 땅이 척박하여 1년 1모작으로 간신히 살아갑니다. 캄보디아에서 하루를 살기위해 전기를 쓰고 전화를 쓰려면 돈벌이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고 키우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도시로 나가면 생활비가 비싸서 가장인 아빠만 따로 살게 되죠. 이번에 STP팀이 방문한 곳은 수도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따계오의 시골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엄마들은 아이를 보면서 따계오의 전통인 베틀 직조를 소일거리로 합니다. 직조를 해서 중간상인에게 납품하면 현금으로 돌아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천이 중간상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임을 받을 수 없어, 하루 꼬박 일해도 5천원을 벌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엘공동체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직조기술을 가졌으나 제대로된 인건비를 벌지 못하는 여성들과 함께 일합니다. 고엘공동체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천연염색면실을 제공하고, 여성들은 이 실로 직조를 합니다. 직조가 완료되면, 고엘에 납품하고 바로 현금으로 공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11년 간 신뢰로 일하면서, 천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졌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캄보디아 시골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 베트남 사회적기업 떠헤(Tohe)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내가 그린 작품이 제품으로 나오는 나는야 어린이 디자이너!”

떠헤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히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착한 기업입니다.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아동, 고아원을 찾아가 자원활동으로 미술수업을 하던 것을 계기로 떠헤는 시작되었습니다. 매 번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미술도구며 각종 무료 수업경비를 대던 베트남에서 잘나가는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응옌(Ngan) 씨 부부는 이 일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돈을 버는 일도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수업결과물을 모아, 디자인 과정을 다시 거쳐 제품을 만들어 판 수익으로 빈곤아동 무료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디자인으로 쓰면 저작권료도 지급해서 가정에 소소하게나마 보탬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떠헤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무료수업을 진행하며, 이제 그 수업을 내실화하여 떠헤 직원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북부산간 마을의 교사를 교육시켜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미얀마 더프라이스의 아푸아웅사회개발 “우기에는 마을이 잠기는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개방이 된 지 얼마 안된 곳으로, 아직 지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STP팀이 방문한 뻘파노 지역은 도시 양곤에서 네 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에야와디강은 카렌족이 도피한 최후의 거주지였습니다. 건기에는 그런대로 살만하지만, 우기에는 1m 이상 물이 불어나 비포장도로 끝에서 다시 배를 타고 20분 정도 들어가거나 위험한 숲길을 오토바이로 지나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STP팀은 800여 명이 살고 있는 뻘청마을에 방문했습니다. 농사나 낚시를 통한 자급자족 이외에는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마을에 희망의 싹이 되어

준 것은 ‘땀’이라는 나무였습니다. 에야와디강 유역의 특산물인 땀나무는 물에 빨아도 썩지않고, 시원하여 전통적으로 돛자리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땀나무를 재배할 돈과 이를 내다 팔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중간상인들에게 돛자리 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루에 많아야 3천원을 벌니다.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이제 뻘청마을 주민들은 힘을 합쳐 함께 재료를 구하고, 돛자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 한달에 20만원을 벌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보통 아이 둘 셋이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가정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함께+21호





**인도네시아 자바라(JAVARA) “지천에 먹을 게 넘치는 열대지방인데, 가난을 끊을 수 없는 인도네시아 오지 섬마을, 우리가 일으켜 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새벽 세시에 나서, 비행기를 두 번 타고, 다시 차를 타고 산길을 꼬불꼬불 가는 험난한 여정으로 14시간이 걸려 도착한 휴화산 근처의 작은 마을 모니(Moni)에 갔습니다. 모니는 열대기후의 마을로 초목이 푸르르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풍성하여 바나나, 파인애플을 비롯한 다양한 열대과일과 코코넛, 칠리(서양고추) 등 식재료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식품에 대한 관리와 보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자신이 섭취할 만큼 채집해 먹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는 실정

입니다.

그럼에도 산 속 사람들은 특별한 현금 소득원이 없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자바라’는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채집하여, 간단한 가공 및 포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자 현지 청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난한 농부들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하는 청년 페르난도(Fernando)는 고향에도 일할 거리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 결혼도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wi**



##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

# “가족 단위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질문. 경영기획팀 선임매니저 민세희  
답변. 국제협력팀 팀장 엄인숙,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석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 ‘내일에서 on 편지’에 대해 이번 호에서는 재단 직원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하여 어떻게 회사를 위한 기부를 몸소 실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부가 새로운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가족 기부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재단 직원 가운데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하셨는데, 소식지 후원자들을 위해 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빈곤아동지원사업(Smile Together Partnership)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근본적인 빈곤 해결을 위하여 부모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외 현장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돕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누면서 내가 행복하고 나눔을 통해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눔은 ‘행복’이다.

”

1

첫 번째 편지: 재단 직원 기부 사례  
국제협력팀 팀장 엄인숙

■ 본인 회사를 위해 기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기부할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제가 일자리를 갖게 된 첫 해부터 근무했던 NGO 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재단까지 후원신청을 하고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사랑하고 조직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부한 금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주변 분들께도 권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 재단을 위해 가족 단위 기부를 실천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내일에서 on 편지’도 가족 단위 기부를 제안하신 건가요?

‘내일에서 on 편지’의 의미를 살려 직장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기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딸에게도 권유하게 되었고, 나눔의 의미도 공유하고 좀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저 보다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미래를 살아가야 할 딸에게 제안하여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일에서 on 편지’를 통한 기부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사용처가 있으신가요?

일자리를 갖고자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부금이 잘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 ‘내일에서 on 편지’를 통한 기부금은 아동·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 분야에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시나요?

아동·청소년에게는 진로지도, 특성화고교 지원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청년에게는 취업준비 및 창업 지원 사업에 쓰여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평소에도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지, 기부와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복지영역’ 기부와 한국YWCA에 ‘탈핵운동’ 기부 그리고 (사)나눔의향기에 어르신 무료급식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저에게 소중한 일자리가 있고 급여가 있는 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내일에서 on 편지’를 통해 아동·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에 백억 원 정도 모여서 안정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

나눔은 같은 시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

2

두 번째 편지: 가족 단위 기부 사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석민

■ 가족이 함께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내일에서 on 편지'에 대한 기획의도를 들으셨을 텐데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즘 청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느끼고 있던 터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한다는 취지가 좋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IMF시대를 경험한 세대예요. 돌이켜

보면,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도 경쟁시대였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당시와 상황은 비슷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도 않을 뿐더러 청년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고 아예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 가족 모두가 한 기관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에게 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확인을 거치는 일이 많고 확신이 있어야 실행을 하게 돼요. 오히려 제 안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향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좋은 취지가 있는 사업이니 함께 해보자고 권하자 제 안사람도 기꺼이 응해주었어요.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기관에서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는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느 곳에 쓰일지 알 수 없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인숙 팀장님께서 ‘내일에서 on 편지’ 키트를 건네시면서 후원처 의도와 취지를 잘 전달해 주셨고 대면으로 만나면서 상대방의 열정과 의지를 알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교감이 좋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제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함께 일하는 재단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평소 알고 계셨나요?**

IMF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팀장님께 듣고 알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는 재단과는 2011년부터 해외지원사업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Smile Together Partnership, STP) 사업을 인연으로 알게 되었어요.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재단 이외에도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기관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기관의 고충을 들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설립 초기인 회사들이 많아서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손이 많이 가는 편이긴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사소한 것에 많이 고마워 들 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말씀 나누다가 제가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따뜻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경기도 사회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회계와 세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기관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저희 재단이 기부, 모금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할 계획인데 앞으로 재단사업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보다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메일을 통해 재단의 소식을 전하기 보다는 대상자가 있다면 직접 만나서 재단을 잘 아는 직원이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일 대일 만남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다음 릴레이는 누구에게 제안하실 예정인가요? 또 다른 가족에게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가족 단위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데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해왔어요. 그래서 딸이 6살이 되어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나이라 딸 명의로도 기부하고 있고 아이에게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릴레이는 가족 단위일지 또는 지인이 될지 생각해보야 할 것 같아요. **wi**

# 재단 동향

##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1월 13일까지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창업자(팀)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창업 자금, 창업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 유한킴벌리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창업 7년 이하의 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한킴벌리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은 지난 11월 2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15개 기관 선정)를 거쳐 2차 현장실사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특성화고교생 IT희망키움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지난 11월 24일, 특성화고등학교 IT동아리를 지원하는 '특성화고교생 IT희망키움 지원사업'의 성과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신세계아이앤씨와 함께 창의적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IT동아리별로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고등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날 경민IT고등학교 동아리 '스마트로봇시범단'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캠코 희망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참가자 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월 초에 취업캠프를 개최합니다. 최신 취업동향 정보와 함께 직무 자가진단,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유형별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취업준비를 앞둔 학생들이라면 무료로 취업 역량강화 캠프에도 참여하고 나만의 취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소셜테크 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특별시 2016년 민간 창업지원기관 협력연계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운영해 온 소셜테크 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22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10개의 팀을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집중 육성 기간을 거쳤고 그동안 얻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모두다(대표 박비)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게임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2016 함께일하는재단 '더 나은' 직원 워크숍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12월 15일 강화도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사업들을 평가하고 2017년도 사업에 대한 토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각자 평소 하고 싶은 사업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살을 붙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켰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 눈으로 보는 함께일하는재단 2016

국내외  
실직빈곤가정지원  
(라이트어램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총 지원금액



613,208,945원

총 지원기관



21개 기관

총 수혜인원



12,769명

국내  
라이트어램프

총 지원금액



75,000,000원

총 지원기관



7개 기관

총 수혜인원



215명

해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총 지원금액



538,208,945원

총 지원기관



14개 기관

총 수혜인원 (2016년 12월 기준)



12,554명

# AFTER DAYS™

Episode 1: Shindhupalchok



## “게임을 통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팔 지진 생존자들의 이야기 After Days

게임 속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캐릭터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게임 캐릭터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겜브릿지는 게임에 대한 이해와 색다른 시각으로 게임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과 이어주는 게임을 만듭니다. 이러한 철학 속에서 개발된 After Days 는 2D모바일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네팔 지진을 배경으로 당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끝까지 마을을 지켰던 신두팔촉 내 이촉마을 사람들이 직접 겪은 약 한 달 간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촉마을은 공정무역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커피'와 거래하는 마을로, 2016년 9월 아름다운커피 네팔센터와 함께 이곳에 방문하여 커피 농부들을 인터뷰하고, 게임을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After Days를 통해 사람들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고 주인공 아샤의 시점에서 재난 한복 판에 놓였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게임 수익의 20%를 지진으로 무너진 학습센터를 짓기 위해 아름다운커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주세요!